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예수 성심 성월)
제29권 29호(나해) 2009 · 6 · 14

[묵상]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마르 14,22)

□ 성체 송가 □

찬양하라 시온이여, 목자시며 인도자신, 구세주를 찬양하라.
정성다해 찬양하라, 찬양하고 찬양해도, 우리능력 부족하다.
생명주는 천상양식, 모두함께 기념하며, 오늘특히 찬송하라.
거룩하온 만찬때에, 열두제자 받아모신, 그빵임이 틀림없다.
그리스도 명하시니, 만찬때에 하신대로, 기념하며 거행한다.
거룩하신 말씀따라, 빵과술을 축성하여, 구원위해 봉헌한다.
모든교우 믿는교리, 빵이변해 성체되고, 술이변해 성혈된다.
물질세계 넘어서니, 감각으로 알수없고, 믿음으로 확신한다.
빵과술의 형상안에, 표징들로 드러나는, 놀랄신비 감취있네.
살은음식 피는음료, 두가지의 형상안에, 그리스도 온전하다.
나뉘없고 갈림없어, 온전하신 주 예수님, 모든이가 모시도다.
한사람도 천사람도, 같은주님 모시어도, 무궁무진 끝이없네.
나뉘성체 조각마다, 온전하게 주 예수님, 계시움을 의심마라.
겉모습은 쪼개져도, 가리키는 실체만은, 손상없이 그대로다.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 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오후	9:00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중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오전 오후 오후	2:00 10:00 8:00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저녁 미사후 오전 오후 오후	9:30 미사후 10:00 8:00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PACEM모임(매주)	오전 오후 오후 오후	9:30 7:00 8:00 7:30
토요일	유아세레 (4번째 토요일) 매론 청년모임 떼제기도모임(2째주)	오후 오후 오후	6:00 5:00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가정의 날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9:00 1:00 9:00 1:00 1:00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 미사	(연)한숙이 모니카, 한점순 테레사, 이정수 모니카, 김소천 마리아, 배일호 헨리, 엄은섭 도로테오
	(생)김희복 아네스, 신이안 에안플라다, 손재승 베드로와 브라이언 서만사, 김선영 스테파니아, 홍석인 체칠리아
주 일 낮 미사	(연)이금순 마리아, 장현숙 발바라, 이현호 요한, 임계순, 전규인 스테파노,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노식 베드로, 고준희 제임스, 이상현 베드로, 김종렬 아가비도, 이영자 마리아, 최남이 테레사, 이재우 마티아, 정윤봉 바오로
	(생)서성용 베드로와 용숙 에스텔, 서유리 줄리엣 다, 김성현 유스티노와 루치아 가정, 정동호 하상 바오로와 병옥 율리아 가정, 최석원 클레멘스, 이인숙 베로니카, 안상훈 라파엘과 은지 마리아, 구마리아네 수녀, 조옥중 사제, 박상대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탈출기(Exodus) 24,3-8
화답송	◎구원의 잔 받들고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갚아오리. 구원의 잔 받들고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가르찰손 주님의 눈에 성도들의 죽음이어. 주여 나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자식입니다. 주께서 내 사슬을 끊어주셨나이다.◎ ○주여 당신 이름을 높이 부르며, 찬미의 제사를 올리리이다. 주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채워 드리리이다.◎
제 2독서	히브리서(Hebrews) 9,11-15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복음	마르코(Mark) 14,12-16.22-26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05	106
봉헌	382	259,190
성체	286	284,308
파견	383	214

9) 위험에 놓인 사람에게 도움을 거절하는 것도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인간사회가 기근으로 사람들이 죽어 가는 데 대하여 구
제책을 세우고자 노력하지 않고 묵인하는 것은 파렴치한 불의
이며 중대한 죄이다. 폭리를 추구하며 탐욕스러운 행위로 인
류 형제의 굶주림과 죽음을 유발시키는 상인들은 간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 책임은 그들에게 돌아간다.”
<가톨릭 교리서 2269항>

십계명 중 ‘살인하지 말라’는 제5계명은 직접적인 살인과 죽
을 위험에 놓이게 하는 것뿐 아니라 위험에 놓인 사람에게 도
움을 거절하는 것까지 금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웃의 생명
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경제 위기에 우리 주변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이웃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6년 유엔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
구는 11억 5천만 명이며, 굶어 죽는 아이는 하루에 약 4만 명
입니다.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식량이 제대
로 분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합니다. 우리는 제5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10) 인간 생명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순간부터
시작된다.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것도 어머니의 것
도 아닌, 한 새로운 사람의 생명이 시작된다. 그것은 그 자신
의 성장을 가지는 한 새로운 사람의 생명인 것이다. 만일 그것
이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면 결코 그것이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인공유산 반대선언문 12항>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1974년 11월 인공유산반대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1973년 미국 대법원의 낙태 허용 판결 등 낙
태를 법적으로 자유화하려는 흐름에 대해 교회는 이 문서를
통해 생명을 존중하는 전통적 교리를 명백히 상기시킵니다.
낙태를 옹호하는 이들은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살
인죄를 부정하려 하지만 현대 유전학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순간 46개의 부모와는 다른 새로운 인간 염색체를 지닌 인간
생명이 시작됨을 알려줍니다. 이 생명은 인간 외에는 다른 어
떤 생물로도 바꿀 수 없는 엄연한 인간 생명입니다. 이에 대해
2세기 학자인 성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이 될 자는 이미 인간이다.”◆

“사람 앞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으니 어느 것이나 바라는
대로 받으리라.”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생명
의 율법을 그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시어 지금 살아
있는 존재들이 죽을 몸임을 깨우쳐 주셨다.”
(집회서 15,17; 17,11)

“... 내 방이 어디 있느냐?”

아주 경건하고 독실한 개신교 형제들 중에 가톨릭의 혼인 미사나 장례 미사에 참여하였다가 ‘신자 아닌 분들은 영성체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말을 들으며 깊은 슬픔을 느낀다는 말을 들곤 한다. 한 개신교 신학자께서는 ‘성체성사는 칼과 총탄보다도 강합니다.’라고 하였다.

미사 예식 중에 집전자인 사제만이 개인적으로 바치는 기도들이 있다. 예물준비 때에 사제는 포도주에 물을 한 방울 섞으며 ‘이 물과 술의 신비로 우리도 우리의 비천한 인성(人性)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에 참여케 하소서!’ 하고 속으로 기원한다. 사실 내게는 이 순간이 미사 중에 가장 행복한 때이다! 하찮은 물질인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를 이룬다는 신앙 고백은 이렇게 우리 인간성(人性)이 하느님의 신성(神性)으로 변용(變容)될 수 있다는 희망뿐 아니라 온 세상과 우주 자체의 진보와 변모로 우리의 시야를 열어준다.

신토불이(身土不異)가 말해주듯 어찌면 인간의 몸과 정신도 그가 태어난 땅의 소출을 섭생할 때에 최상에 이를 수 있다. 이렇듯 하느님의 모습으로 태어난 인간이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고 살 때에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나날이 성장해 간다. 그래서 성체성사를 천사의 양식(Panis Angelicus), 신령한 음식이라고 노래하는 것이다.

빵과 포도주가 그분의 몸과 피로 실체적으로 변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이미지로 말하자면 일종의 ‘핵분열’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의 원리가 창조 안에 도입된다. 이 변화는 온 존재의 핵심에 파고 들어 실재를 변화시키는 과정,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기까지(1코린

15,28)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시작한다.(사랑의성사 p.32) 그래서 우리가 단지 영성체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수동성에 머물러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루카 22, 19)라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성체성사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바치시는 행위에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러기에 당신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봉헌물은 이 세상의 성장, 우주 만물의 진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걸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성장뿐이다.(데이아르 드 샤르댕)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익명의 사람이 제공하는 큰 이층 방에서 거행되었다고 전한다. (15절) 예수님은 이 집주인에게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14절) 하고 물으신다. 이 부유한 주인은 기꺼이 자신의 제일 큰 방을 내어 드린다. 이 주인은 자신의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자신을 개방하고 주님과 제자들을 영접하는 관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22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상통한다. 예수님의 자기증여, 즉 자신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내어주심을 닮고 있다. 이 자기 증여의 텅 빈 공간 안에 새로운 인간의 탄생과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묵시 3,20)

◆구요비 읍 신부 | 프라도회 한국 책임

이번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문재원 클로틸다	신덕례 테레사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이태호 바오로	김교복 레오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김금자 테레사	이혜신 안젤라
제물봉헌자			P.V. 2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례 테레사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박진수 스테파노	김교복 레오
제2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박혜경 레나타	김금자 테레사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2반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최영신 프란치스코(최숙 클라라) 형제가 지난 5년동안 어려운 공부를 끝낸 후 13일(토) 로저 마호니 추기경의 주례로 서품식을 갖고 마침내 종신부제품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백삼위 본당에서 봉사할 이 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오늘처럼 기쁜날 친교자리에는 잔치국수가 준비되어 있으니 모두 가서 축하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사도 성 바오로의 해(2008년 6월29일~2009년 6월29일)를 맞아 백삼위 신자들은 지난 1년동안 바오로 서간을 공부하고 필사해왔습니다. 이제 그 **봉헌식을 6월28일(주일) 낮 미사 중**에 가지려 하니 필사를 완성하신 분들은 소공동체 소속 구역의 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 빈첸시오회가 집에서 입지않는 의류를 수집합니다. 모아진 의류는 LA 대교구 빈첸시오회로 보내 남미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줍니다.

- 수집장소 : 성전 밖 빈첸시오 수거함
- 수집마감 : 6월21일(주일)까지

- 대상 : 2009/2010 년 주일학교, 한국학교 교사진, 청소년
보호 위원회 위원, 기타 청소년 관련 봉사자
- 일시 : 6월10일(수) 12:00pm - 3:40pm, 5:20 pm - 7:20pm
- 장소 : St. Philomena(21900 Main St. Carson)
사전 예약 필요 ☎(310)830-6180

- 일시 : 6월20일(토) 2:00PM ~ 5:00PM
- 장소 : 백삼위 본당 강당

- 강사: 최안젤라(LA 대교구 Virtus Training Facilitator)
- 대상: 주일학교/한국학교 교사진, 청소년 보호 위원회 위원, 청소년 관련 봉사자, 기타 관심있는 신자분들
- 문의: 청소년 분과장 강인모 테오도시오 ☎(415)730-4585

- 본국의 평화방송/평화신문은 지난 2월 선종하신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추모영상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출시, 해외교우들에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 내용 : 추기경님의 유언말씀, 장례 예절 등 차례로 수록.
60분 DVD, 한글음성/영어자막/일어자막
- 보급가 : \$15 * 신청 : 본당 사무실

-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 장소 : 본당 1층 회의실
- 대상 : 회원들간의 교육 및 친목을 위한 모임입니다. 비회원
들의 참석도 환영합니다
- 연락처 : 회장 황선홍 그레고리오 ☎(424)903-6637

- 일시 : 7월2일(목) 오후 7시~5일(주일) 오후 4시
- 장소 : Divine Word Retreat Center(11361 Cypress Av.
Riverside , CA 90010)
- 지도신부 : 선우 진 신부
- 참가대상 : 18세~35세 미혼 및 기혼 청년
- 참가비 : \$180 * 신청 : 이세레나 ☎(562)569-0934
- 주최 : 남가주 성령쇄신 청년 봉사회(KYCR)

● 지난 4월 26일 견진성사를 받은 교우들은 기념사진과 스냅 사진을 찾아가십시오.

- 6월14일(주일) : 종신부제 축하 잔치국수 전신자에 대접
- 6월21일(주일) : P.V. 3반(콩나물비빔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구자운	금영도	김기정	김대우	김병태	김선제
	김성현	김양금	김옥보	김원모	김원호	김윤진
	김정렬	김정엽	김정희	김형순	남명자	노혜숙
	모은기	민기남	민봉식	박동수	박상준	박선희
	박준구	박희자	방정복	배태임	서흥삼	성낙호
	송기철	신대철	양영관	엄세종	엄혜은	유희연
	이근모	이명자	이상석	이석호	이연행	이영희
	이용식	이인두	이재용	장수창	정명모	정순석
	정훈모	주대중	최금옥	최미나	최태훈	한연만
	한혁수	한혜숙	홍숙자	황학수	박제이	합계 : \$4,970
한길선	레					
미사현금 : \$2,636			2차현금 : \$1,043			

성전헌금	구자운	금영도	김기정	김대우	김병태	김선제
	김성현	김양금	김옥보	김원모	김원호	김윤진
	김정엽	김정희	김형순	남명자	노혜숙	모은기
	민기남	민봉식	박동수	박상준	박선희	박준구
	박희자	방정복	서홍삼	성낙호	신대철	엄혜은
	유희연	이근모	이명자	이상석	이석호	이영희
	이용식	이재용	장수창	정순석	정훈모	주대중
	최미나	한연만	한혁수	한혜숙	홍숙자	
	박제이	한길선	한레			
합계 : \$3,870						
감사헌금 : 민영준 이봉덕 경민희						

주일학교 소식

◆ 2009/10 학년도 주일학교 등록

- 1차 등록시기 : 오늘 주일(7일)~6월 28일
- 2차 등록 시기 : 8월중
- * 교재 준비를 위해 빠른 접수 부탁드립니다.
- 등록금 : \$100 (1년분)/접수 마감 이후 \$10 추가
둘째:\$80, 셋째:\$60, 넷째이후: 무료
(자모회비는 가정당 \$40)
- 대상 : 유치원~12학년

◆ 여름 성경학교 신청

- 일시 : 6월26일(금) 오후 3시~27일(토) 오후 5시
백삼위 본당에서 1박2일(Overnight)
- 대상 : 2학년~7학년(접수마감 오늘 주일 14일)
- 준비물 : 침낭, 세면도구, 여벌옷 * 참가비 : \$10

◆ Youth Conference(고등부 신앙대회)

- 일시 : 7월24일(금) 낮 12시 출발~
7월26일(주일) 오후 3시 도착
- 장소 : Steubenvill,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참가비 : \$175
- 신청 : 주일학교 또는 사무실

남가주 소식

◆ 유빌라테 제3회 정기 연주회 '성음악 미사'

- 남가주 가톨릭 성가 동교회 유빌라테가 제3회 정기 연주회 및 성음악 미사(박상대 마르코 신부 집전)를 봉헌합니다.
성음악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시 : 6월19일(금) 오후 7시
 - 장소 : 성 빈센트 성당(621 W. Adams Bl. LA, CA 90007)
 - 지도신부 : 박상대 마르코 신부
 - 문의 : 단장 이항 요셉, 지휘 김정숙 클라라
☎(909)618-7575

◆ 미주 아프리카 희망 후원회원의 밤

- 지난 1월17일 창립총회를 가졌던 미주 아프리카 희망 후원회(수단 이태석 신부 돕기 후원회)가 다음과 같이 후원회원의 밤을 엽니다. 많이 참석하여 주십시오.
- 일시 : 6월20일(토) 오후 5시
 - 장소 :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2040 W. Artesia Bl. Torrance, CA 90504)
 - 문의 : 김효근 야고보 신부 ☎(310)325-5251

이번 주 단체 모임

모임의 날	오전 9시,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행사의 날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홍안나 328-5772 6/12(금) 오후 7시30분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박선희 소피아 619-4343 6/13(토) 오후 7시
	3	한길선레 스콜라스티카 218-7824	한길선레 스콜라스티카 782-1025 6/20(토) 오후 8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틀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명렬 라파엘 374-1572 6/28(주일) 오후 1시
	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찌니 클라라 612-8840	1	엄영숙 마리아 373-5662	박영룡 요셉 527-7471 6/19(금) 오후 7시30분
	2	박희자 마리아 325-6982	안혜진 세레나 530-0357 6/10(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강은진 켈마 214-2290	강은진 켈마 214-2290 6/12(금) 오후 7시30분, 성당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권오상 바오로 365-2183 6/12(금)오후 7시, 성당
	3	대건희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건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정정숙 율리아 365-4722	정정숙 율리아 365-4722 6/12(금) 오후 7시30분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박혜경 레나타 808-5005 6/13(토) 오후 7시, 성당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장숙환 수산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정훈모 바오로 791-6779 6/12(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배수정 클라라 377-2228 6/12(금) 오후 7시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허리타 377-3820 6/12(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반나영 체칠리아 (424)206-2911 6/2(화) 오전 10시

《사도 바오로의 해 특집: 바오로 서간과 신학사상》

◇ 바오로 서간 필사 순서 : 데살로니카 1서, 데살로니카 2서, 코린토 1서, 코린토 2서, 갈라티아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로마서, 에페소서, 콜로새서, 티모테오 1서, 티모테오 2서, 티토서

◎ 사목서간(티모테오 1서, 2서, 티토서)에 대한 이해 (2) ◎

③ 사목서간과 바오로의 다른 서간들을 비교해 볼 때, 교회론, 신앙의 관념, 성령의 역할, 종말론 등 신학적 사상에도 큰 차이점을 보인다. 예를 들면,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할 때 바오로의 친서에는 '내림'(parousia)이라고 하지만 사목서간에서는 '시현'(epiphania, 재림과 육화의 뜻)이라고 한다. 성령의 은사도 바오로 시대에는 다양했지만 사목서간에는 예언의 은사만 있고, 나머지는 교계제도에 흡수되어 있다. 다른 바오로의 서간들에서 흔히 다루는 이방계 그리스도인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이나 반박에 관한 내용이 없다. 그보다는 이단에 맞서 올바른 교리와 거룩한 신심에 부합되는 가르침을 따를 것을 강조한다. 종말에 대해서도 친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임박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사목서간에서는 종말이 미루어져 먼 장래의 일로 되어있다. 그래서 교회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신자들이 올바른 가르침과 신심에 따라 살아가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런 이유와 특징이 오늘날 학자들 사이에서 사목서간이 바오로 사도의 친서라기 보다는 바오로의 제자나 바오로를 존경하던 추종자가 바오로의 이름을 빌려 당시의 교회 상황을 반영해서 썼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 **사목서간의 집필 연대와 장소** : 앞서 언급한 이유들을 근거로 사목서간의 사도 바오로 친저성을 부인하면, 이 편지들이 로마에서 집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90년 이후에 이 서간들이 집필되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때에 바오로의 친서들이 정리되었기 때문이다. 사목서간을 보면 감독자와 장로가 구별되지 않는다.(티토 1,5-7) 그런데 117년경에 안티오키아 이나시오 주교는 감독자를 교회 최고 지도자로 지칭하고, 장로들이나 봉사자들과 명확히 구별했다.(마그네시아에게 보낸 편지 3,2; 6,1) 교계제도가 확립되고 발전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사목서간은 117년 이후에는 집필되지 않았다. 장소는 세 편지에 언급된 지명대로 에페소를 수도로 하는 아시아 총독주의 어느 교회였던 것 같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비록 사목서간들이 바오로의 친서가 아니라 후대작품이라고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일 이 서간들이 바오로 사도가 순교한 후에 쓰인 작품으로 본다면 바오로 다음 세대 사람들이 바오로 사도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역사적으로 알아보는데 사목서간이야말로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목서간은 바오로 사도가 우정을 지킬 줄 알고, 제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다운 태도를 취한 스승이었으며, 많은 지역에 교회들을 건설하고 다스린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그는 감옥에 갇혀서까지 성서를 읽고 묵상하는 스승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2티모 4,13)

◆ **수신인** : 사목서간의 수신인은 티모테오와 티토다. 티모테오는 리스트라 출신으로(사도 16,1)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계 이방인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이었다. 바오로의 제1차 전도여행 때 개종하였고, 제2차 전도여행 중 바오로가 소아시아 교회들을 순방할 때에 그와 동행하였다. 그 후로 바오로의 항구한 동반자인 동시에 협력자로 활동했다.(1티모 3,2; 1코린 4,17; 16,10) 제2차 전도여행 때 바오로가 유대인 박해자들의 소동 때문에 데살로니카를 떠나야 했던 그 뒤로 티모테오는 다시 데살로니카로 파견되었다.(1테살 3,1) 또 제3차 전도여행 때 바오로가 에페소에 체류하는 동안 티모테오는 사도 대신 코린토(1코린 4,17; 16,10)와 마케도니아(사도 19,22)에 파견되었다. '아들같이 사랑하는' 티모테오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티모테오를 에페소 교회에 자기 대리인으로 소개한다.(1티모 1,3) 티토에 관해서는 사도행전에는 전혀 말이 없지만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이다.(갈라 2,1-3) 티토는 예루살렘회의 때 바오로를 동반하였고 또 바오로로부터 극히 중대한 임무를 위탁받고 코린토로 파견되었다.(2코린 2,13; 7,6; 8,6) 그는 바오로와 코린토 교회 사이에 야기되었던 격심한 불화를 제거하는데 성공하였으며 바오로는 그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2코린 8,16-23) 그 이후로 예루살렘 신도들을 위해서 마케도니아와 코린토에서 모금도 했다.(2코린 8,6 이하) 하지만 바오로의 제1차 수감생활 중에 그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 바오로는 티토와 함께 크레타 섬에 머물다가 티토를 그곳의 감독자로 임명하여 머물게 함으로써 복음 선교와 교회조직의 사업을 완수하게 하였다.(티토 1,5) 티토는 바오로의 제2차 수감생활 중 그의 곁에 있었으며, 조금 뒤 복음 선교의 사명을 띠고 달마티아로 파송되었다.(2티모 4,10) [◆주임신부]